

“땡큐~ GS칼텍스”...돈보이는 사랑나눔, 여수가 훈훈하다

지역 대표기업인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지역민을 위한 사랑나눔에 한창이다. GS칼텍스는 지난 17일 한가위를 맞아 지난 여수 연등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GS칼텍스 사랑나눔터에서 'GS칼텍스와 함께하는 한가위 사랑의 온정나눔기' 행사를 열고 1억원 어치의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GS칼텍스가 지난 2005년부터 11년째 이어온 '한가위 사랑 온정나눔기'를 통해 추석 선물을 전달한 곳은 지역 복지시설 900여 개소, 소외이웃 5000여 가정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2억원이 넘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철현 여수시장과 박정재 여수시의회 의장, 김병열 GS칼텍

스 사장 등이 여수 공장 봉사대와 함께 선물 포장을 마치고 전달식 후 무료급식 봉사에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쌀과 생필품 등 한가위 선물은 지역내 12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앞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수공장 인근마을 및 도서지역 주민에게 4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이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지역민을 위한 사랑나눔에 앞장서면서 지역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모범사례로도 손꼽히고 있다.



예울마루 야경

60만명 식사 제공·7800명에 장학금 58억 등 꾸준한 사회공헌

지역민과 함께해 온 대표기업

지난 1967년 여수산단에 처음 입주한 지역 유일 정유사인 GS칼텍스는 중동발 저유가 여파로 지난해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겪으면서 모든 비용을 줄이는 초긴축 운영에 돌입했지만, '희망에너지 교실'을 비롯한 가장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만큼은 중단하지 않았다. 특히 GS칼텍스는 국내 최고 공연장인 '예울마루'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랑나눔터' 지원 등에도 더 큰 애정을 쏟았다. 독거노인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GS칼텍스

사랑나눔터'는 지난 2008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수 십억 원을 투입해 60만명이 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급식에 참여한 봉사자 수만 직원 봉사대를 포함 무려 4만명이 넘는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GS칼텍스 장학금' 지원사업도 2014년 225명을 포함, 지금까지 7800여 명에게 58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역친화 기업을 선포한 GS칼텍스 노사도 지난 9년 동안 노조 기부금과 사측 매칭 그랜트로 조성한 사회봉사 기금 6억3000만

원을 교복나눔과 저소득 가정 중학생 야간학습 식비,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이어온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GS칼텍스 사회봉사단의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 등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형순 GS칼텍스 전무는 “지역민을 위한 나눔 실천은 지역기업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소외이웃 지원과 장학·교육 사업, 문화예술 지원, 환경보전 활동, 사회봉사단 활동 등 5개 영역에서 지역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100억 들여 아트센터 건립...416회 공연 32만여명 관람

'예울마루'로 문화예술도시 비상

국내 최고 수준의 아트센터(복합문화공간)인 예울마루는 GS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1100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5월 건립한 국내 최고 수준의 아트센터(복합문화공간)다. 규모

는 지상 7층, 건축 연면적 2만4945㎡에 이르며, 바다를 품고 있는 망마산과 그 앞섬인 장도 일원 70만㎡(약 21만평)에 조성됐다. 1021석의 대공연장과 302석의 소공연장으로 구성됐으며 세계적 수준의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울마루는 오랫동안 문화 불모지로 불렸던 인구 30만의 중소도시 여수를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도시로 업그레이드하는 신호탄이 됐다. 수도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뮤지컬 '맘마미아' 등 대형 공연을 비롯해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16회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32만6000여명의 관람객이 예울마루를 찾았다.

GS칼텍스 매년 수십억 지원...운영비 부담 줄일 대책 필요

막대한 운영비 마련은 해결과제

예울마루 운영에는 매년 30억~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GS칼텍스와 여수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여수시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운영하는게 원칙이지만, 매년 시민 현세를 들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GS칼텍스가 아직까지 예산을 지원하며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GS칼텍스가 사회 공헌사업으로 또 한차례 추진할 '장도 개발사업'에는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매년 운영비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자칫 공헌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어서다.

그렇다고 재정이 열악한 여수시에서 매년 시민 현세를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여수시민

을 위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체험형 수익성 사업 등을 유지하는 등 운영비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S칼텍스재단도 예울마루 측이 최근 기본계획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도 예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시민과 관련 전문가, 지역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화사모 소속 과학교사들이 지난 19일 여수화학교에서 열린 '2015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축제에서 참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여수 초등학생 450여명 '즐거운 화학세상' 만끽

과학교사 모임 '화사모' 11년째 체험행사

전남도교육청 소속 과학교사로 구성된 화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화사모)이 어린이를 위한 화학체험 행사 11년째 이어가면서 지역을 넘어 국내 과학교육을 대표하는 체험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사모는 21일 “어린이들이 화학을 직접 체험하며 더 쉽게 이해하도록 '2015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체험 축제를 지난 19일 여수화학교에서 여수 관내 450여 명의 초등학생과 함께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학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한국RC(Responsible Care)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여수시 등의 후원을 받아 전남 교육청 소속 과학교사들로 구성된 '화사모'가 주관했다.

지난 2004년부터 11년째 화사모 교육기부 활동으로 계속된 이번 행사는 '우리 주변의 플라스틱 이야기'라는 주제로 ▲내가 만드는 스타이로폼 ▲플라스틱 액세서리 만들기 ▲다시 태어나는 플라스틱 (주변의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생활 도구 만들기) ▲너의 이름은!(볼 안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물질 이름을 쓰고 재료를 알아맞히는 게임) ▲바이트인 C를 찾아라 등 6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진 18개의 화학부스에서 어린이들은 시종일관 즐겁고 행복한 화학 체험 행사를 만끽하면서 함께 온 학부모들의 큰 호응도 이끌어냈다.

이학천 화사모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참례된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